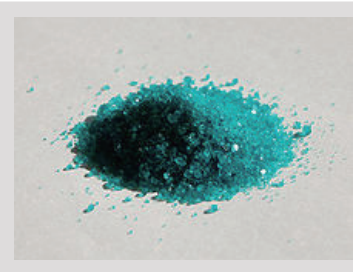


품명	황산니켈					
HS code	2833.24					
상대국 수입관세율 (%)	<table><tr><th>MFN('24)</th><th>RCEP</th></tr><tr><td>3.9</td><td>0</td></tr></table>	MFN('24)		RCEP	3.9	0
MFN('24)	RCEP					
3.9	0					

선정
사유

▶ 해당 품목에 대한 對일 수출증감률은 19년부터 22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4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821.6%로 대폭 상승함

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2833.24)

(단위 : 천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56,940	780
2020	76,910	35.1
2021	118,882	54.6
2022	155,128	30.5
2023	152,253	-1.9
2023.3	4,291	-83.8
2024.3	39,544	821.6

▶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기차 수요 증가와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체결 및 발효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 등의 이유로 對한 수입이 급등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선정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 관련 법안임

우리나라
對일
수출동향
(HS 2833)

▶ 황산염의 對일 수출금액은 “황산니켈(HS2833.4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4년도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황산니켈(HS2833.44)”의 수출금액은 대폭 상승했으나, “기타(그 밖의 황산염)(HS2833.29)”의 수출금액은 소폭 감소함. 이외 품목의 수출 금액은 미미한 수준임.

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2833 세부품목)

(단위 : 천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	2023	2024.1분기
		총계	157,730	154,671	40,210
1	283321	황산마그네슘	0	0	0
2	283322	황산알루미늄	0	0	0
3	283324	황산니켈	155,128	152,253	39,544
4	283325	황산구리	0	0	0
5	283327	황산바륨	75	19	0
6	283329	기타 (그 밖의 황산염)	2,527	2,399	666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 HS 2833.24(황산니켈) 對일 수출 금액은 증가하였으며 FTA 활용률은 23년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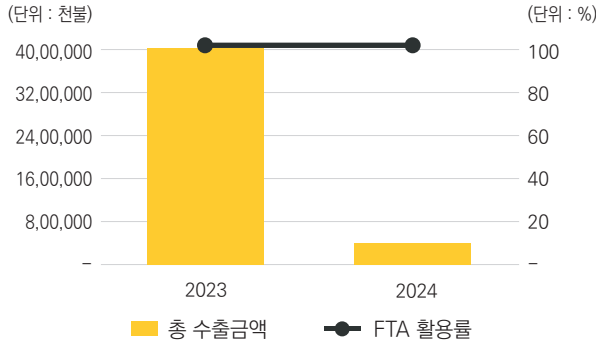
- FTA 활용률 23년 1분기 100%, 24년 1분기 100%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TH or RVC 40%임

▶ 24년 1분기 기준, HS 2833.24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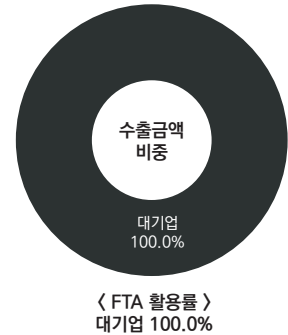
- FTA 활용률은 대기업 100% 임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6)

HS 2833.24의 對일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
(2023~2024)



HS 2833.24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1분기)



일본
수입
동향

- ▶ 23년 기준 일본의 HS 2833.24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 대만, 벨기에, 핀란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44.1%), 대만(34.7%)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10위권 이내의 수입국인 벨기에, 핀란드 등의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미미함

특이
사항

-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배터리 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 등을 미국의 FTA 체결국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FTA 체결국인 한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관심이 높음
 - 20년 한국산 황산니켈의 수출액은 8.5천만 달러였으나 23년 수출액은 2.4억 달러로 약 189%가 증가함
 -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23년 수출액의 약 61.6%가 일본을 대상으로 함
 - ▶ 23년 3월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을 체결·발효하며 일본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음
 - 해당 품목의 수출이 일본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정치적 이슈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동 품목의 수출 동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각화와 전기차 배터리 기술 도입의 촉진을 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공평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핵심광물로는 니켈, 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이 해당됨

시사점

- ▶ 선정품목의 RCEP(한-일) 특혜관세율 0%, MFN은 3.9%로 RCEP(한-일)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일본측 수입관세율 MFN 3.9%, RCEP 0%로 RCEP 활용 혜택이 3.9% 있는 품목임
- ▶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 광물과 구성 물질의 공급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며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선정 품목은 주요국 관련 제도에 따라 공급망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임
- ▶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이 요구됨
 - * 일본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RCEP 협정국(ASEAN,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간 적용되는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특혜관세율 적용시 유의가 필요함